

2019 내-일상상프로젝트 in진주 사람책 결과보고서

차례

02	펴내며
04	내-일상상프로젝트
06	진주의 내-일상상
08	상상학교 사람책
10	진주의 사람책
12	사람책 모아보기
14	스물네 명의 이야기
48	사람책 결과보고
50	사람책·참여자 설문조사
58	이번 사람책 사업을 되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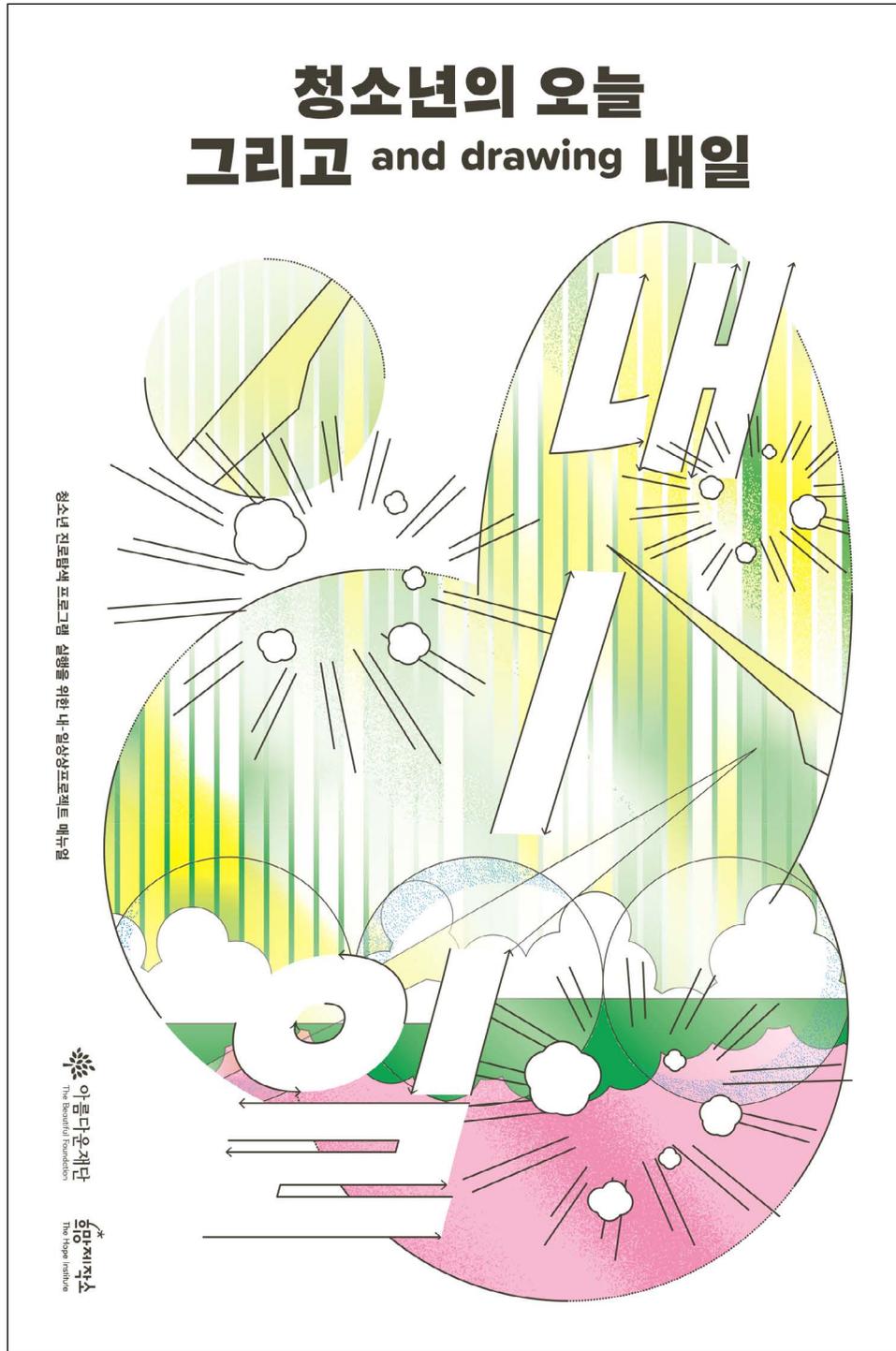
펴내며,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2019년부터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고 희망제작소가 주최하는 [2019 내-일상상 프로젝트]의 지역파트너 단체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상상 프로젝트는 기존의 직업 위주 진로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청소년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경험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는 활동입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내-일상상 프로젝트의 첫 활동으로 청소년 대상 사람책을 진행했습니다. 사흘 동안 스물 네 명의 사람책과 백 이십여 명의 참여자와 함께해주셨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는 2019년 5월과 6월 진주에서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람책 행사의 결과물입니다.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 분들이 이 책자를 통해 진주의 사람책을 펼쳐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주에서 새롭게 시작된 내-일상상 프로젝트의 결과를 충분히 기록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비슷한 활동을 만들어갈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펴냅니다.

2019년 8월 14일,
진주교육공동체 결 내일상상팀



[2018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내-일상상프로젝트 매뉴얼] 표지

내-일상상프로젝트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 내에서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경험함으로써 진로교육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그 한 명의 행동과 학습만으로 구성되지 않듯 청소년도 또래, 어른들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의 환경, 삶과 상호작용하며 녹아날 때 대학 진학이나 건물주, 공무원이라는 특정 방향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각자의 균형감을 익히고 삶의 방향키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2018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내-일상상프로젝트 매뉴얼] 중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고 협업하면서 다양하게 나의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발견하며 성장하는 진로탐색모델입니다. 청소년이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지역을 떠나는 청년층의 이탈이라는 현실을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극복해보고자 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고 희망제작소가 주관한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6년 시작되어 2018년까지 3년간 순창, 완주, 장수, 전주, 진안 5개 지역에서 지역파트너와 함께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2019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처음으로 진주의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주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고민하는 단체인 '진주교육공동체 결'이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지역파트너로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세워주는 강연과 다양한 삶의 모습을 나누는 사람책 활동으로 이루어진 '상상학교', 일·노동·직업·지역을 주제로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욕구와 재능을 발견하며 지역 내외를 탐색하고 지역의 일감을 수행하는 '내일생각워크숍', 지역에 필요한 일을 직접 설계하고 청소년의 욕구와 연결한 팀 프로젝트 '내일찾기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단발적인 행사가 아닌, 한 지역에서 3년동안 연속해서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진주교육공동체결은 1년차에 모인 청소년 참여자들이 2, 3년차에는 프로젝트를 주도해서 기획하고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내-일상상

진주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지난 2018년에 만들어진, 진주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결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는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진주지역 청소년들의 진로와 가치관에 대한 고민에 함께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데 지원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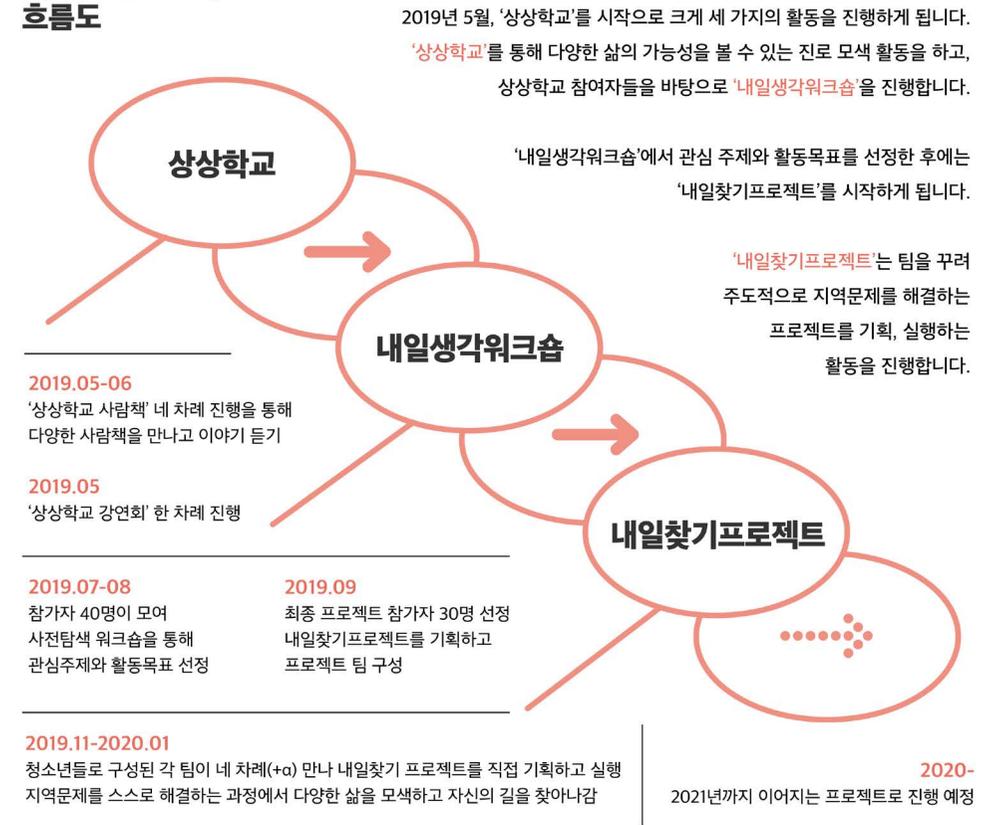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2019년 한 해 동안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이렇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만남 자신의 영역에서 창조적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지역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청년,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타지로 나갔다 돌아온 청년 등 다양한 사례의 지역민과 청소년들의 만남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 진주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만나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고민을 확장하고, 실제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험 삶의 목표가 대학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청소년들이 각자의 관심사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경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가지는 일을 직접 해보는 경험이야말로 자신의 꿈과 가치관을 찾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결은 내-일상상 프로젝트에서 최대한 틀이나 규칙, 영역 없이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고, 옆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돕는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역에서의 삶 청소년·청년들은 지역에서 희망을 찾기 힘듭니다.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문화생활, 더 많은 누릴 것들을 위해 큰 도시로 떠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의 주체가 여겨지지 않고, 지역사회를 함께 꾸려나가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바꿔내고 싶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역에서의 삶을 상상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 흐름도



2019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5월과 6월, 총 네 차례의 상상학교사람책을 진행했고, 진양고등학교에서 한 차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 40명의 참가자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팀을 꾸리고 준비하는 내일생각워크숍을 네차례 진행합니다. 내일생각워크숍을 하는 동안 참여자들은 관심있는 주제와 활동목표를 선정하고, 퍼실리테이션, 디자인싱킹 등의 기법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워크숍인 기획워크숍에서 팀빌딩과 주제를 확정하여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워크숍을 마친 후 워크숍의 결과를 공유하는 중간공유회를 진행합니다. 11월, 최종적으로 남은 30명의 참가자가 본격적으로 내-일찾기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세 팀으로 나뉘, 이듬해 1월까지 세 달동안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결과공유회를 통해 1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2019 상상학교
사람책* human library

2019 내→일상상 프로젝트

1차
→ 5월 18일 (토) 오후 3시
→ 진주여자고등학교

독자신청 | bit.ly/사람책참가
참가문의 | 010.7202.7652

사람책 리스트

- 상상하는대로 이루어 살아가는 삶 | 김민숙, 생명과학연구실 경남팀장
- 산골마을에서 스타트업 대표로 살아가기 | 허정아 (주) 파랑은 대표
- 틀려도 괜찮아, 늦어도 괜찮아 | 박희단, 충무공초등학교 교사
- 청년농민이 꿈꾸는 세상 | 이흥희, 신항농민회 사무국장
- 나는 아직도 꿈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 장신영, 창의인성놀이 지도사
- 출러가는 대로 살지 않기 | 오형애 (주) 외로 대표
-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손영은, 모우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지원단 본부장
-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기 | 최홍석, 진주시 도시재생 서포터즈

2019 상상학교
사람책* human library

2019 내→일상상 프로젝트

2차
→ 5월 22일 (수) 오후 7시
→ 진주제일중학교

독자신청 | bit.ly/사람책참가
참가문의 | 010.7202.7652

사람책 리스트

-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 김아람, 웨비공유공간 내가좋아하는 대표
- 수다쟁이 아줌마 도매가로 살아가기 | 이경원, 흙이아이기 도매공방 대표
- 나는, 우리는 노동자다 | 김은희, 경남 비정규직 근로지원센터 서부권 팀장
- 문화예술로 여는 우리의 마음 | 박지훈, 오프닝아트나-오프닝아트센터 대표
- 특별우릴 전도시 농촌의 가치를 지키는 우리들 요리농부 | 김명미, 일일영농조합법인 이사
- 인버로 살기 | 김은희, 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반반
- 희망연화 | 채은이, 대한YMCA한국영양술부
- 지역에서 미디어로 일하기 | 최정주, 진주시민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담당

사람책 포스터 네 장. 회차별로 일시·장소와 사람책 리스트가 다르다.

2019 상상학교
사람책* human library

2019 내→일상상 프로젝트

4차
→ 6월 2일 (일) 오후 3시
→ 진주삼현여자중학교

독자신청 | bit.ly/사람책참가
참가문의 | 010.7202.7652

사람책 리스트

- 진주에서 작가로 살아가기 | 정은미, 전 유니스컨텐츠 대표, 현 꽃보라 대표
- 수다쟁이 아줌마 도매가로 살아가기 | 이경원, 흙이아이기 도매공방 대표
-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손영은, 모우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지원단 본부장
- 문화예술로 여는 우리의 마음 | 박지훈, 오프닝아트나-오프닝아트센터 대표
- 청년농민이 꿈꾸는 세상 | 이흥희, 신항농민회 사무국장
- 느리게 살 용기가 필요해 | 이수민, 휴학생 1
-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 진옥희, 진주여성회 사무국장
- 지역에서 미디어로 일하기 | 최정주, 진주시민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담당

2019 상상학교
사람책* human library

2019 내→일상상 프로젝트

3차
→ 6월 1일 (토) 오후 3시
→ 진주개양중학교

독자신청 | bit.ly/사람책참가
참가문의 | 010.7202.7652

사람책 리스트

-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이현을, Hope in Herb 대표
- 나는, 우리는 노동자다 | 김은희, 경남 비정규직 근로지원센터 서부권 팀장
- 내 삶은 나의 시기로 흘러간다 | 김은희, 공평대안중학교 근무
- 내 인생은 나의 시기로 흘러간다 | 박은숙,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2학년
-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 진옥희, 진주여성회 사무국장
- 출러가는 대로 살지 않기 | 오형애 (주) 외로 대표
- 활동하는 사람들, 다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다 | 박은숙, 진주여성소비자경제협동조합 이사장
- 일분군'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고 산다는 건 | 박은숙,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 진주명회기림사업회 사무국장

상상학교 사람책

진주교육공동체결은 프로젝트를 함께 할 청소년단위가 없기에, 상상학교 과정을 통해 많은 청소년을 만나고 앞으로 프로젝트에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자 했습니다. 사람책이라는 형식이 강연보다 참여자들이 소통하며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청소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책을 네차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최근 유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사람책 사업들 중 일부가 한 사람책당 지나치게 많은 독자 수를 정하여 독자와 사람책의 자유로운 대화라는 사람책의 강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상학교 사람책을 진행하는 동안 한 사람책당 독자 수는 기본 4명, 최대 6명까지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갈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진주의 사람책은 5월부터 6월까지 네차례 진행되었습니다.

표① 사람책 회차별 행사 개요

회차	일시	장소	비고
1차	5월 18일 토요일 3시	진주여자고등학교	
2차	5월 22일 수요일 7시	진주제일중학교	* 평일 저녁에 진행
3차	6월 1일 토요일 3시	진주개양중학교	
4차	6월 2일 일요일 3시	진주삼현여자중학교	

진주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를 대관하여, 진주여자고등학교, 진주제일중학교, 진주개양중학교, 진주삼현여자중학교 네 곳에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주말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주말에 참가가 힘든 참가자들을 위해 2회차 한 번은 평일 저녁으로 잡았습니다. 매 사람책 행사에 독자들은 여덟 명의 사람책 중 두 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표② 사람책 시간표

시간	내용
10m	사전안내, 사람책 배정
40m	첫번째 사람책
10m	쉬는시간
40m	두번째 사람책
20m	소감 공유 및 마무리

독자들은 선착순으로 듣고 싶은 사람책을 고르고, 10분 정도 사람책 활동과 내·일상상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은 후 40분씩 두 명의 사람책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20분은 사람책과 독자가 소감을 공유하는 닫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습니다.

사람책



나는 아직도 꿈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강신영 창의인성놀이 지도사

... 14p



인싸로 살기
권은진 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동반자

... 15p



상상하는대로 이루어 살아가는 삶
김민숙 생명과학연구회 경남1팀장

... 16p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김아람 취미공유공간 내가좋아하는 대표

... 18p



나는, 우리는 노동자다
김준형 경남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서부권 팀장

... 20p



문화예술로 여는 우리의 마음
박자훈 오프닝컴퍼니-오프닝아트센터 대표

... 21p



틀려도 괜찮아, 늦어도 괜찮아
박희란 충무공초등학교 교사

... 22p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준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창원지원단 본부장

... 25p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기
오형애 (주)와로 대표

... 26p



화양연화 재인이 삶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
이재은 대학YMCA전국연맹 총무

... 27p



진주에서 작가로 살아가기
정윤이 전 유니스킨케어 대표, 현 꽃보라 대표

... 28p



청년농민이 꿈꾸는 세상
이종희 산청농민회 사무국장

... 29p



지역에서 미디어로 일하기
조정주 진주시민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담당

... 30p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기
최흥식 진주시 도시재생 서포터즈

... 31p



산골이장에서 스타트업 대표로 살아가기
허정아 (주)파밍순 대표

... 32p



토종우리밀 전도사! 농촌의 가치를 지키는 우리밀 요리농부!
김영미 밀알영농조합법인 이사

... 33p



수다쟁이 아줌마 도예가로 살아가기
이경원 흙이야기 도예공방 대표

... 34p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한울 Hope In Herb 대표

... 35p

모아보기



내 삶은 나의 것
김용만 공립대안중학교 경남꿈키움중학교 근무

... 36p



내 인생은 나의 시계로 흘러간다
허준승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2학년

... 37p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전옥희 진주여성회 사무국장

... 38p



협동하는 사람들, 다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다
백은숙 진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 39p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고 산다는 건
박순이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 진주평화기림사업회 사무국장

... 41p



느리게 살 용기가 필요해
이수민 휴학생 1

... 42p



진주의 사람책

내일상상팀은 행사를 시작하기 전, 스물네 명의 사람책들에게 사전질문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소개, 자신이 이룬 꿈과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청소년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 답변들을 통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진주의 사람책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람책의 답변 원고를 편집하여 나눕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모든 사람책분들께서 흔쾌히 동의해주셔서 사람책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개인 이메일 주소를 적었습니다. 독자분께서 사람책의 글을 읽고 더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질문이 있다면 이 메일을 통해 연락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도 꿈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과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싶어서 놀이 공부를 시작 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다시 학교를 다닐 때처럼 공부하라고 했다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고 싶다',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니 하고 싶은 일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현재 과학수업과 놀이수업을 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스스로가 필요해서 하는 일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고 싶고,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에 대해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강신영

창의인성놀이 지도사
tlsud82@naver.com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아이를 3명 이상 낳아서 키우고 싶었는데 그 꿈 또한 이루었습니다. 자작곡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이루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멋지게 노래하고 연기하고 싶은 꿈도 이루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도 이루었습니다. 사회자가 되어서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 꿈도 이루었습니다.

현재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작곡 음악회를 하는 꿈도 꾸고 있습니다. 또 놀이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서부경남 최고의 놀이 지도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놀이 강의를 하는 꿈이 있습니다. 연극 무대 위에서 나의 인생을 주제로 1인극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가족밴드를 만들어서 거실음악회를 하는 꿈을 꾸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수많은 꿈들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꿈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꿈을 이루고 꿈을 꾸는 것이지요. 행동하지 않고 머물러서 머리로만 고민하는 것은 상상일 뿐입니다. 꿈은 행동을 할 때 이를 수 있습니다.

인사로 살기

권은진

진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동반자
jini-beautiful@hanmail.net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성인권교육, 도박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환경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입니다. 또 심리상담도 하고 있는데 위기청소년 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을 합니다.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할 세상은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이야기하고 남의 말을 왜곡없이 있는 그대로 들어 줄 사람이 많은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로서 저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이야기 들어 주기.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들어 주기입니다.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저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10년동안 일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된 건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고 싶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고 지금은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3년후에 중국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을 두는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1. 산정상에서 "야~~~호" 라고 외치면 산이 나에게 "야~~~호"라고 메아리로 돌려 준다.
2.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3. 나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잘못된 사람을 벌을 준다고 상처를 받은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상상하는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삶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저에게 2010년은 새로운 시작의 해였습니다. 2010년 부산대학교 과학교육 소속회 소속 '엄마는 과학자'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그 동아리는 취업 정보와 함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초·중등 방과후 교실과 연결하고 또 그들이 학부에서 그만둔 공부를 대학원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경력단절 엄마들을 직접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과학자라는 사실을 보여 줘야 아이들이 훌륭한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다리가 되어 주저하는 과학자 엄마들로 하여금 사회에 다시 한 번 용감하게 발을 내딛도록 하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5명으로 시작한 작은 인터넷 카페는 한국 여성 과학 기술인 센터의 후원을 받는 정식 동아리로, 40명이 모인 협동조합으로 무럭무럭 성장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때의 협동조합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기업으로 자랐고 당시 그분들은 지금 사회에서 과학자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배우는 걸 즐거워하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성격 덕인지 저에게 경력단절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8개월까지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며 강의를 나가고 야간대학원에 다니며 동아리까지 챙겼습니다. 일을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일이란 우리 부모님의 자랑이었고 제 자신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아를

김민숙

생명과학연구회 경남1팀장
spedm@hanmail.net

하면서 일을 지속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선택과 포기를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엄마로써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고 싶어서 <엄마와 함께 하는 과학여행>이라는 책까지 냈습니다.

현재는 생명과학연구회의 경남지역을 담당하며 두번째 학교 협동조합에서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틈틈이 초등, 중등 학생과 계속하고 싶은 과학 수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바빠서 못한다 라는 말은 수동적이어서 싫어 합니다. 어떤 일든 선택이든 바른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근거로 두고 빠르게 선택하려고 합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으로 ...^^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두려움 없이 앞을 향해 전진!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제가 하는 일에서도 최고가 되고 싶기에 바쁘지만 힘든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학생들과의 수업을 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읽어줘야 하고 학부모님들의 특성을 이해 해야 하고 학교와 융통성 있게 소통해야 하고 같이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해결책이 되어야 하니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에 행복하구나'라고. 우리가 족에게 고맙고 우리 사회에게 고마워졌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날도 몸은 힘든데 즐거워졌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벌려 보려 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 즐거운 일들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엄마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내가 선택한 건지 어떤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있습니다. 나의 삶의 환경과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아보니 그렇네요. 나의 행복도 불행도 내가 결정했다고. 그래서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그냥 상상해요. 그렇고 노력해요. 안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난 후에 '난 나의 삶에 충실했고 달려도 봤고 멋지게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삶을 살았다면 그건 정말 멋진 당신의 삶이 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김아람

취미공유공간 내가좋아하는 대표
my_favorite_ar@naver.com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 지하도상가 청년몰에서 '내가 좋아하는'이라는 취미공유공간을 운영 중인 청년ceo 김아람입니다. 대학 졸업 후 4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 일에 관심이 많아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청년몰 창업의 기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청년몰에서는 식음료 부분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평소 취미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에 '취미공유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취미공유공간'에서는 수강, 체험, 상품제작의 형태로 제 취미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한 달에 한번 정기 모임을 가지며 꾸준히 취미공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강의 형태로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어떠한 기술을 배운다의 개념보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같이 알아가며 결과적으로는 그 취미들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거나' 라는 모토를 삼고 있어요.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꿈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늘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무서워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당당하고 밝은 친구들이 부러웠었는데 직장을 다녀보고,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지금 제가 좋아하고 가장 자신 있는 일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멋있다고 느낄 정도로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일에도 도전해보려 시도할 줄 아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은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어릴 때부터 꿈꾸던 것 중 하나인 행복한 가정 꾸러 가기를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 쓰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기 등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진로'라고 하면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이었고 마치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게 성공한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저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 해 주고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업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에 대한 장점과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는 노동자다!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민주노총 경상남도본부 소속의 경남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서부권 지원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가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동법률 상담 및 관련 사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노동조합 가입입니다. 민주노총과 함께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치관은 '세상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는 것이 삶의

김준형

경남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부권 팀장
gnwlabor@gmail.com

목표입니다.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제가 이룬 꿈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꿈이라고 생각한 게 별로 없어요. 만약 꿈이라고 한다면 우리 나라가 외세에 자주롭고,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사회,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는 통일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리하면 '자유민주통일'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얼마 전 학생인권조례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지는 취지의 조례가 부결되어 버렸네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인권입니다. 여성인권, 청소년인권, 학생인권 등 모두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된 권리를 보장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동인권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 사장님들과 자본에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자부심!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노동자와 예비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노동법률에 대해 상담을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갑질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질문하시면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로 여는 우리의 마음

박자훈

오픈컴퍼니-오픈아트센터 대표
opening@naver.com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오픈(OPEN·IN ing)'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은 출판과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오픈컴퍼니'와 작가님들을 비롯하여 예술을 사랑하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 소통하는 활동을 시행하는 '오픈아트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함께 나누며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문화예술활동은 아주 대표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은 서로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치유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픈, "당신의 마음을 OPEN(열고)하고, 따뜻함이 IN(들어가는)하는 만남 ing(중입니다)입니다."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저는 오픈의 운영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명의 예술인이기도 합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소통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진정 좋아하는 일이어야 진정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느낌을 함께 느끼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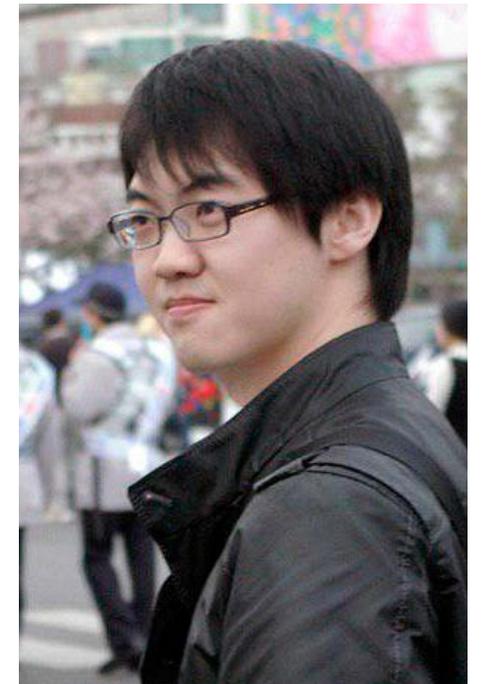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나의 역사를 멋진 에세이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시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멋진 생각을 하고, 나를 완성하는 방법은 내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감성의 칼날을 세우고, 논리의 페이지를 늘려갑시다.

나의 진실을 담아내어 훗날 펼쳐 보았을 때 맛있는 향이 풍겨 나오도록.



틀려도 괜찮아, 늦어도 괜찮아.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무공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교사 박희란입니다. 제가 어찌다가 선생님이 되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어찌다 어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어찌다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책이 많은 곳에 있고 싶어 서점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도서관을 알았다면 제 꿈은 사서였겠지만요. 서점 주인이라는 꿈을 이루었다면, 지금쯤 교보문고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물론 제가 되고 싶었던 것은 큰 서점 말고, 시골의 작은 책방 주인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글을 읽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업이 저에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과는 상관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력고사 세대인지라 성적에 맞는 학교에 입학하여 대충 살다 대충 졸업해 버렸습니다. 물론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원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작가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그 사람들의 글을 책으로 만드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저의 첫 직장은 작은 인쇄소에서 편집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대학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도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겠다,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으로 또는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대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인쇄소 편집 일을 시작으로, 꽃집 아가씨, 법무

박희란

충무공초등학교 교사
bin91@hanmail.net

사 출장 대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습학원 강사,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학습지교사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월급이 딱딱딱 나오고 함부로 잘리지 않는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 서른이 되기 전의 제 삶의 모습, 이것이 제가 어찌다 교사가 된 사연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다 교사가 된 저는 어찌면 그래서 조금 늦게 가는, 조금 틀린 것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늦었고, 제가 틀려도 보았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살아가면서 제가 이룬 꿈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꿈은 꼭 직업이나 진로의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이 꿈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작가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그 사람들의 글을 책으로 만드는 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생각을 듣고, 아이들의 글을 문집으로 만드는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지금도 여행을 잘 다닙니다. 혼자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어떤 분 덕분에 같이 가족여행을 다니는 것으로 수정했지만 말입니다.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여 지금도 책을 즐겨 있지만 노안으로 인해 글씨가 큰 책으로 수정했어요.

제가 이룬 꿈도 이루지 못한 꿈도 모두 소중합니다. 이루지 못한 꿈들도 수정해가며, 관점을 바꾸어 가며 조금씩 이루려 하고 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끝날 무렵에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해도 재미없잖아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제가 사람을 만날 때의 기본자세는 좋은 사람이 되어 주자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은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사람들이 모두 제 주위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비슷해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은 좋은 곳이라 거기 오는 분도 다 좋은 분이라는 착각 때문일까요? 아무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되

어주는 것입니다.

내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올해 운이 좋아 좋은 학구에서, 좋은 학년을 배정받아, 좋은 부모 밑에 좋은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란 좋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확률이 낮겠지요? 그래서 좋은 아이들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은 바뀌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아이들은 좋은 아이들이다'라는 마음 속 다짐과 함께 좋은 사람으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운이 좋아 만난 괜찮은 아이들과 편하게 보낸 한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의미 있고 행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도 저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뿐이지 좋은 사람으로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마다 좋은 사람을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는 좋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좋다,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는 것을 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 인정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행해질 때 진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실수 했어', 잘못했을 때 '잘못 했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삶에서 만난, 제 생활 속의 좋은 사람의 모습은 제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특별한 가르침을 품은 멋진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교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회 속에서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 교실 속에 펼쳐 놓을 뿐입니다. 내 생활의 일부에 교실이 있는 것이니, 교실 속에서도 좋은

선생님이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교실 속에서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딱 한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실수투성이 저를 공개하는 겁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허술하다', '실수도 많이 한다', '틀릴 때도 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보여줄 거고, 내가 모르는 것은 함께 배워가면서 하자. 물론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지는 않지요. '이따이가, 내가 좀 실수도 마이하고 틀릴 때도 있다이~' 뭐 이렇게 말하지요. 아이들은 제가 처음 실수하는 순간을 어색해 합니다. 오르간을 치다가 틀렸을 때, '잠깐 내가 틀렸다, 미안한데, 다시 처음부터 불러 보자'. 칠판에 원을 그리다가 이상한 포물선이 나왔을 때, '에이 머까치 그릿따, 기 다리바라, 내 다시 그리께'. 제가 생각해도 진짜 설명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 날, '야~, 오늘 내가 설명을 너무 잘한 것 같다. 선생님 좀 칭찬해도~' 저보다 색종이를 잘 접는 아이를 만났을 때는 '이거는 니가 우리반에서 젤 잘하는 것 같다. 쌤한테도 가르치도'. 저와 다르게 문제를 풀어놓은 아이가 있을 때는 '선생님이 아는 한에서는 이기 맞는데, 다른 답이 있는지 함 찾아보자'. 저의 실수가 반복되고, 그것의 쿨한 인정이 반복되면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익숙해진 아이들은 저처럼 실수를 인정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해보지 뭐'. 이런 느낌.

또 저는 잘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의 만남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러 갑니다. 처음 담임을 맡았던 반의 아이를 이해할 수 없어 미술치료를 배우러 갔구요, 그걸 계기로 평생교육원에서 해마다 한두강좌를 꾸준히 수강했습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청소년상담, 어린이영어지도, 사티어 가족상담, 갈등해결, 부모교육, 심지어 수채화까지 이것저것 배우다가 전문상담교사 자격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모자라면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

만, 그런 도전에 지치면 좀 비어 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뭘 배우고 있다는 걸 교실에서 항상 강조하지요. '내가 어제 배운 거 말이다', '내가 요즘 읽은 책 중에...' 뭐 이렇게요.

몹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저는 투덜이 스머프 같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에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던지, 이런 불편함은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불편한 것을 투덜투덜 말하면 다 고쳐지지는 않지만 일부가 고쳐지기도 하고, 변화가 하나도 없을 때조차도 말하고 나면 시원합니다. 물론 제 교실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교실 더럽다, 급식소에서 너그들이 뛰서 놀랬다, 수업 시작하면 교실에 좀 있으면 안되나 내가 사는 모습 그대로, 내 생활 그대로를 교실에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내 삶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면 심장이 쿵~하고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선생님이 된 사람 치고는 놀라운 발전이지요?

책을 좋아해서 책방주인이 되거나,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었던 저는 종이에 글을 적는 대신 해마다 스물 몇 권의 사람책을 만나 읽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듯이,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좋은 사람이기를 바래 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지원단 손영준 본부장입니다.

모두의경제는 2019년 경남권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입니다. 창업지원단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টে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팀과 함께 호흡하고 길을 걷어가는 '담임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사회적경제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저는, 약 5년간의 사업을 통해 지역의 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여 후배들에게 주게 되었고, 또 다른 사회변화의 길인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공감'을 통해 우리 주위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느끼며, 해결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나의 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본다면 매우 거창한 것 같지만, 작게는 분리수거를 잘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진주지역의 교육에 작은 변화를 주기위해서 노력하였고, 현재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손영준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지원단 본부장
sohnyj77@naver.com

기업가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담당으로 오게 되었고, 꿈은 계속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꿈이 하나 있다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국내와 국외(아프리카)에 만드는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복해야, 올바르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멀리 보고, 많은 경험을 하자~!!
꿈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인가?
대학은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는 곳, 사회는 '안정된 직장'을 요구.
지금의 청소년은 노년까지 평균 3개 이상의 직업을 가져야 함.
내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다양한 경험이란 무엇일까?



흘러가는대로 살지 않기

오형래

주식회사 와로 대표
ggoomdit@naver.com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2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이며, 현재 소셜벤처를 운영하고 있는 오형래라고 합니다. 소셜벤처는 현재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청소년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의 활동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해 보았기 때문인데요.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이나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경우, 경제적 사정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 스스로 꿈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 소셜벤처 창업을 하였습니다. 저의 목표는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제 가치관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기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면 재미 없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사실 저 또한 제 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꿈을 꼭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작은 꿈을 이루기 위한 선택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
(경제적인 이유로 태권도 선수라는 꿈을 포기했고, 방황하는 과정에서 만난 새로운 꿈 사회복지사, 그리고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한 새로운 도전 치킨전문점 창업 이야기와 현재, 소셜 벤처를 운영하기까지의 과정들.)



재은이 삶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

이재은

대학 YMCA 전국연맹 총무
alwaysbbxxi@gmail.com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YMCA전국연맹의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재은입니다. 제 스스로를 '청년사회활동가'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다고 세상이 변하나요?'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이들에게 '세상이 변하지 않는데 왜 그런 것을 하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힘빠지게 합니다. 저는 사회에 참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의 말은 그런 자신의 권리를 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런 말이 나오게 된 맥락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장 눈에 닳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각박해서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각박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청년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내는 '청년사회활동가'라고 스스로를 이름 지었습니다.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저는 아직도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현 사회에서

'꿈' 이라 하면 당신이 원하는 직업, 앞으로 할 직업에 대해 흔히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공부만 강요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과목을 배우며 진로탐색을 통해 '사회부 기자' 라는 꿈을 갖고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학창시절의 경쟁에 치여 그저 '더 나은 대학을 가는 방법'에 대해 몰두하며 정작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확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내에만 안주하지 말고 본인의 진로탐색 등 견문을 넓힐 수 있게 다양한 활동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시절 단순히 봉사시간을 위해 참여했던 청소년YMCA활동은 시간이 지나 저의 인생의 turning point가 되었습니다. 사회에 참여하는 법, 내 목소리를 내는 법을 YMCA의 활동으로 배우며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가는 자세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YMCA라는 단체에 활동을 하여 사회참여를 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등 교내 활동에만 치중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의 다양한 활동, 접근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경험만 쌓은 시간낭비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진주에서 작가로 살아가기

정윤이

꽃보라 대표

yun00344@gmail.com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피부관리사를 10년 넘게 하다가 작가의 길로 들어선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은 작가로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부 관리를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 글을 쓸 때는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설을 쓰고 있으면 어떤 글이 탄생할까?라는 생각에 소설을 쓰는 일이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낼 거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책을 11권을 썼으니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제가 작가의 길로 들어선 이유는 글 쓰는 일이 재미도 있고, 글을 다 쓰고 난 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뿌듯한 기분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글을 쓰고 언젠가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글만 쓰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책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의 가치관은 재미있는 글을 쓰고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책은 읽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책을 한 권 정도 쓰고 싶다는 환한 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꿈이었는데 어느 날 정말 우연한 기회에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기회가 되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책을 쓰고 싶다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종이 책이 아닌 전자책으로 말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은 베스트 셀러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매년 10권 이상의 책을 쓰면서 글 쓰기 실력을 높이고 팬을 만들어서 실력 있는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저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문해력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쓰고 싶은데 글쓰기 실력도 빨리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주위에 책을 읽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지 않았더니 생각이 넓지가 않았고,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고도 책을 읽을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책을 읽으라고 저에게 강력하게 권해 주었고 30대가 되어서야 책을 한 권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어서야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찾을 수도 있고, 문해력이 높아지면서 자기를 되돌아 볼 수도 있고, 수많은 간접경험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만 있는 책읽기를 꼭 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글을 쓰는 것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청년농민이 꿈꾸는 세상

이종혁

산청농민회 사무국장

zh8657@gmail.com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경남 산청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이종혁입니다.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25살 때이고, 그 이후로 대학과 농민단체를 거쳐 2017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농업과 농촌, 자연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나 이를 외면한 채 지내왔습니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보면서 농사는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 온 것 같습니다.

한때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중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곧 하고 싶은 일이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젊은 이들이 농촌현장으로 들어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농촌, 땀 흘린 만큼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젊은 사람이 농사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어, 다른 청년들보다 쉽게 농촌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준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눌 친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찾았고 함께 청년모임을 만들어 이제는 우리들만의 아

지트도 만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금은 산청이라는 지역에 잘 정착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혼자가 아닌 함께 잘 살기위한 삶은 무엇일까.



지역에서 미디어로 일하기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진주시민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 상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관심있는 것이 미디어였고, 관련해서 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미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진주시민미디어센터를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글씨를 쓰는 연필처럼, 누구나 미디어로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그려서 소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관심사였던 미디어를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실제로 활용해 돈을 벌겠다는 꿈은 이뤘습니다. 그러나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아직까지는 '전문가가 되진 못 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해도해도 어렵고, 공부할 것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관계가 있는 다른 재미있는 것들도 눈에 들어와서요. 무언가를 더 많이 해보고 싶은 마음 반, 집중해서 전문적으로 파고들고 싶다는 마음 반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매년 '희망 직업' 과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쓰는 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꾸준히 '기자' 라는 직업을 써냈고, 대학에서도 관련 전공을 배웠습니

조정주

진주시민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담당
jojo@jjmedia.or.kr

다. 그렇게 들인 시간이 많았는데, 막상 기자가 되어보니 그 직업이 저에게 '안 맞는 옷' 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 속에서도 내가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다른 자리가 보였습니다. 나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을까', '다른 것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를 매번 생각합니다. '직업' 이라는 좁은 문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라는 큰 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기

최홍석

진주 도시재생 서포터즈
keosan2007@naver.com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최홍석입니다. 진주시 도시재생 서포터즈로서 진주의 도시재생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이 역할을 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일이 제가 제일 재미어 하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와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가 되고 싶다'가 아닌 '~를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인생철학은 제가 여러 분야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뜻하지 않게 요즘 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멀티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시재생 서포터즈 외에도 한국투명성기구 청소년연합 창준위원, 모의 UN, 모의인권이사회 등의 활동을 했으며, 현재는 도시재생 서포터즈와 경상대 인재개발원 서포터즈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내가 이룬 꿈] 정치외교학과 입학, 시민사회론 팀 프로젝트의 현실구현(한국투명성기구 청소년 연합), 공군본부 인권 모니터단 단원 선발, 군전역적금으로 사이클 구매, 각종 공모전 우승, 각종 서포터즈 선발 (진주시 도시재생 서포터즈, 경상대 인재개발원 서포터즈), 내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여러 분야의 아르바이트 경험하기, 군대에서 동아리 활동하기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캡스톤 디자인에서 대상 수상하기, LH 도시재생과 인턴 경험, LH 취직, 사이클로 국토 종주하기, 사이클로 대마도 종주하기, 캠핑카로 미국 서부 여행하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저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제가 단순히 '놀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순간에 추구하는 이상향이나 경험하고 싶었던 것들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철이 없다', '아직 사회를 몰라서 그런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 이는 요즘의 팍팍한 세상에서 얼마나 취업이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하시는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번 하고 싶은 것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마다 값진 무언가를 남긴다면, 후에 진로를 설정할 때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자산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라! 그리고 누구에게나 당당하기 이야기 할 수 있는 너만의 경험으로 만들어라'입니다.



산골이장에서 스타트업 대표로 살아가기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2018년 10월에 회사를 설립해서 농업용마스크를 판매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건강하게 옷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골에서 감나무와 뽕나무도 키우고 있는데 농사를 하면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최대 즐거움은 내 몸 안 아프고 돈 벌어서 자식들에게 베푸시는 일입니다. 이런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즐거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더불어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내가 이룬 꿈] 자녀들을 제 기준에서 잘 키운 것,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잘 살아온 것.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작년부터 대학교수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보다는 100세 인생인데 즐겁게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 계속 공부 중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1) 너무 불안 초조하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가족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자기의 내부에 대해서 원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2) 긍정적으로 순간순간을 감사하게 살아요. 머

허정아

주식회사 파밍순 대표
cheska@naver.com

나면 목표보다 하루하루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요. 갑자기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3) 좋은 습관을 가져요. 습관이 나의 미래입니다.

4) 여러분!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기자신을 소중히 하고 사랑하세요. 전부 진짜 너무 예뻐요.

5) 좋은 책, 좋은 사람, 좋은 여행 등을 경험하세요. 꾸준히 계속 쉬지 않고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을 위해 노력한다면 목표에 도달하면 감사한 일이고, 목표에 가지 못해도 그 자체로 즐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토종우리밀 전도사! 농촌의 가치를 지키는 우리밀 요리농부!

김영미

밀알영농조합법인 이사
26205@hanmail.net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내가 이룬 꿈] 토종우리밀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함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된 일

[이루지 못한 꿈] 아직도 농업이 농민의 개인의 것이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농업과 식량은 국가의 근간이며 구심입니다. 국가적 측면에서 지켜야 할 산업임을 함께 자각하는 것.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농업이 가지는 가치를 함께 인지하고 싶다. 국방안보가 중요하듯 식량안보도 중요하고 그 일을 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처우도 개선되어야겠지만 농업과 농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경지의가치는 281조 (양분공급179조 8천억, 자연순환79조1천억, 식량생산10조5천억, 탄소저장6조 5천억, 수자원함량4조5천억-자료:농진청)이라고 한다. 사회적으로 팔시받고 천대하는 농업은 실제로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 쌀과 밀, 식량을 지키는 일은 국방을 지키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 함께 소중함을 인지해가자.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토종 우리밀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토종종자를 지키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밀을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제2의 식량임에도 자급률이1%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값싸게 들어오는 수입밀가루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점점 대중에게 멀어지는 우리 밀 하지만 누군가는 꼭 지켜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국방안보는 중요한데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은 천대하는 사회풍토를 변화했으면 합니다.

수다쟁이 아줌마 도예가로 살아가기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혁신도시 무지개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흙 이야기 도예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경원입니다. 저는 도자기를 만들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도자기와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즐겁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짜증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일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일을 하지는 안았습니다. 대학에서는 서양화를 전공하였고 대학 다니는 동안에는 도자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용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산점 때문에 배운 도자기가 너무 좋아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누군가가 무엇이라고 해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원

흙이야기 도예공방 대표
kungwun71@naver.com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지금 나만의 공간에서 공방을 하면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제가 이룬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자기와 함께 살아가면서 작은 갤러리 겸 사랑방을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차와 커피를 나누고 각자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을 나누는 공간에서 서로의 살아가는 이야기 예술에 대한 이야기 생각들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또한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사람들과 나누고 즐겁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재미있고 행복하다면 그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과연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은지 아니면 누구의 강요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한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나의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선택의 시간에는 신중하게 더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였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와 성공을 위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가지고 내 삶의 주체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나의 꿈 앞으로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 보고자 합니다.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한울

Hope In Herb 대표
ihv1432@naver.com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수제 맥주와 효모화장품 전문기업 Hope In Herb의 대표 이한울입니다. 저는 화장품을 담당하며 마케팅, 경영일반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늦어도 2년 후에는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청년 창업이란 '사회적 가치'라는 말과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아도 사회적 가치는 대단히 중요해졌고, 굳이 돈 때문만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측면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생각할 때는 '함께' 라는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저의 꿈은 한의사였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구한의대에 진학하였고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화장품 소재공학과로 전과하였고 그동안 배웠던 한의학 지식을 활용하여 화장품 소재연구를 진행하던 중 수제맥주에 관심있는 친구와 만나서 '맥주 화장품'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고 우선 씨앗을 땅에 심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가꾸어서 중견기업의 단계까지 끌어올린다면 우선 첫 열매를 맺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친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첫 그루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

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숲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꿈을 위해 꾸준히 정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3년간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고 학원강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느낌은 '불행하다.' 였습니다. 기성세대들은 끊임 없이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말하며 현실에서 모든 행복을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낡은 생각으로 자녀들의 꿈을 세뇌합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을 행복하지 않은 나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책 이야기에서 가장 처음 이런 청소년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후 그 청소년들이 바라는 미래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과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화장품을 '자신만의 선택'으로 만들어보고 결과물로 토의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내 삶은 나의 것

김용만

경남꿈키움중학교 교사
yesyong21@hanmail.net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정적이고 꿀 직업이라고 부러워(?)하는 직업이지요. 저는 꿈이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어찌어찌하다보니 교사가 되었는데 이 이야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당일날 말씀드리지요. 어차피 교사가 되었고 저는 아이들을 통제하는 선생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현실을 보여주는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경남꿈키움중학교에 근무를 신청한 이유도 비슷합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저는 꿈이 뭔가에 대해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확실한 것은 꿈은 직업이 아니며 뭔가를 더 많이 갖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은 방향입니다. 꿈은 설레여야 합니다. 꿈은 나만 좋아서는 안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꿈? 꿈을 안 가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날 말씀드리지요 ^^.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려주겠습니다. 웬만한 영화, 드라마, 코미디보다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토요일날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시계로 흘러간다

하준승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2학년
fluffyword@gmail.com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4년을 다니고 지금은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하준승이라고 합니다.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때에는 그저 남들을 따라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했어요. 하지만 정말 대학을 가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만 가는 것에 지쳐 잠시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만 두었어요. 쉬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여러 사람책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학교도 생각이 달라지고 나니 제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였어요. 그렇게 학교로 돌아갔고, 그때부터는 대학을 가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었죠. 지금은 제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것이 생겼고 또 그 공부가 즐거워졌어요. 지금도 제가 흥미가 생기고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배우고 싶은 22살 청년입니다!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전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때에는 주변을 신경 쓰는 것에 급급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용기가 많이 부족했어요. 결국 전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러 대학에 왔고, 쪽 하고 싶었던 음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룬 꿈은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 배움의 즐

거움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라면 음악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즐거운 일이잖아요?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게 된 음악을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실력이 늘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작은 밴드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고등학교 동안 제가 겪었던 힘들었던 이야기들, 즐거웠던 이야기들 그 시간동안 동안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된 과정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요. 저도 직업에 대해, 진로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이거든요. 저는 저의 사람책 제목처럼 천천히,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시계를 차고 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요즘 대학을 다니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잊게 된 것 같아요. 저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 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여성회라는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운동가 전옥희라고 합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여성운동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을 마주하며 좀 더 평등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대학시절에 결심한 여성운동가로의 꿈은 이루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운동의 현장을 더 폭 넓게 경험하여 현장성 있는 이론과 여성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여성주의연구활동가로 성숙해지는 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옥희

진주여성회 사무국장
ooki25@hanmail.net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청소년기에 꿈은 무궁무진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이 평생 가지 않아도 되니, 강박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페미니즘은 누군가 한 편을 위한 사고가 아닙니다. 모두의 인권과 평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살아가기에 대한 고민을 깊이하고 실천하는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탐구하고 성찰도 해보고,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협동하는 사람들, 다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다

백은숙

진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kkllove35@hanmail.net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진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진주아이쿱생협)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장이라 해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권력을 가진 그런 거창한 이사장이 아닙니다. 윤리적 소비자들이 모여서 만든 생활협동조합의 법인 이사장이며, 조합원들의 의사수렴을 대변하고 대의하는 조합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부릅니다. 협동조합의 활동가는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를 퍼뜨리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협동하는 생활의 윤리를 배우며, 생협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생협의 문을 두드리게 된 건,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이지만, 그것이 모든 우리 사회의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업과 환경 노동이 바로 서고,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 시스템이어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히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먹을거리를 넘어 안전한 삶이 국민의 기본 권리로 실현되어야 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책임있는 삶의 주인으로 서로의 삶을 지탱하며 협동조합과 이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 나와 우리 가족만이 아닌 모

든 이웃이 더 나은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며 협동조합의 활동가로 16년동안 활동해왔습니다.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를 좀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조합원들과 함께, 지역 속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저는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진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진주아이쿱생활)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장이라 해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권력을 가진 그런 거창한 이사장이 아닙니다. 윤리적 소비자들이 모여서 만든 생활협동조합의 법인 이사장이며, 조합원들의 의사수렴을 대변하고 대의하는 조합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부릅니다. 협동조합의 활동가는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를 퍼뜨리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협동하는 생활의 윤리를 배우며, 생활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생협이 문을 두드리게 된 건, 안전한 먹을거리를 원해서이지만, 그것이 모든 우리 사회의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업과 환경 노동이 바로 서고,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 시스템이어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히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먹을거리를 넘어 안전한 삶이 국민의 기본 권리로 실현되어야 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책임있는 삶의 주인으로 서로의 삶을 지탱하며 협동조합과 이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 나와 우리 가족만이 아닌 모든 이웃이 더 나은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며 협동조합의 활동가로 16년동안 활동해왔습니다.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를 좀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조합원들과 함께, 지역 속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우리 삶과 미래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마음먹고 계획한 꿈들이 순탄하게 잘 흘러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난관에 부딪쳐 포기하고 계획을 바꾸거나 수정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럴 때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자기 삶의 근본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도 괜찮아'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든,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문제투성이고 불만스럽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잘 헤쳐나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불만스럽고 부조리한 것을 그냥 좋게 좋게 대충 넘어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현실은 목소리를 내어 말하고, 개선시켜 나가야죠.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여럿이 힘을 합쳐서 말이죠.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힘을 합하고 연대하면 큰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나가는 삶이길 바랍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고 산다는 건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사무국장,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상근자입니다. 긴 시간 회피해 왔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저는 눈앞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써 왔어요. 청년들의 문화공간을 만들었고, 커피숍에서 일하는게(외근) 꿈이었는데 커피숍을 차렸답니다. 평화기림상이 일년만에 진주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와 강아지를 함께 키웁니다. 성숙한 자유인이 되는 것, 일본이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하는 것, 평화통일이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에요.

박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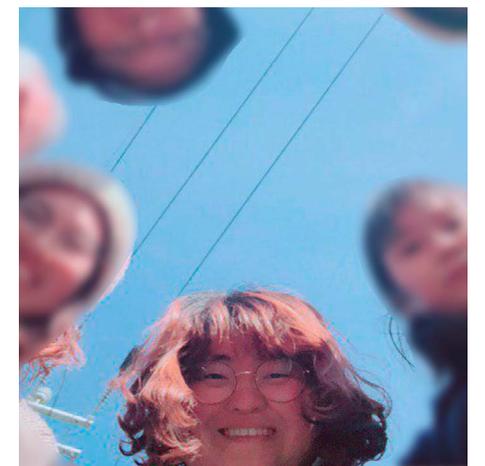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
진주평화기림사업회 사무국장
boheme0324@gmail.com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청소년기에 만난 작은 점이 생애 전반에서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기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게 있어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어떤 선생님이 이야기 해주셨는지도 모를 만큼 스쳐 가는 일이었는데 수십 년 후에 이 문제가 30대 후반, 제 인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쳐 듣는 이야기들,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언젠가 인생에 있어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고 재미있는 일을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는 청소년들을 응원합니다.



느리게 살 용기가 필요해

이수민

휴학생 1

lsmin0722@hanmail.net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이수민입니다. 현재 대학은 휴학 중이고 경상대 정문 모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대학생넷이라는 학생단체와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동기들이 하나 둘씩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나가는 시점에서 저는 조금 천천히, 느리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교실 안 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 배우고 얻어온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경쟁에 편입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왜 사회는 친구, 동료와 이웃들끼리 잘 지내라고 하면서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살 수 있도록 할까?

내 삶을 통해 실험해보고 싶어요. 불안정하고 위기도 고민도 많겠지만 일단 지금 나는 학생이니,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대학생 수민이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을 열심히 살고 싶어요.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중학생 때 수학시험이 끝나고 시험지를 걷어가는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시험성적 때문에 울지는 않아요.

제 꿈은 잘 놀 줄 아는 농평이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나에 대한 기준이 높아 무언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은 <1.술 마시고 수업 들어가기, 2.시험 전날 9시에 자기, 3.성적발표 날 기다리지 않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조금 느려도 다양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대학 가도 똑같아요... 대학가면 뭐든 이뤄진다는 어른들의 거짓말 믿지 마세요. 중고등학교에 내신과 수능성적이 있다면 대학에선 학점과 취업, 공무원시험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야 하지요. 사회에 반항하며 살아가고 있는 휴학생1이 알려드립니다! 현실적인 경험담과 꿀팁!

나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반항하기! 잘만 싸워도 제대로 반항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도 자격증 따고 빨리 졸업해서 취업해야하는 거 아닐까... 대체 내 꿈은 무엇일까...' 나와의 싸움!

'그래도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나. 언제까지 현실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래? 앞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끊겠다!' 주변 환경과의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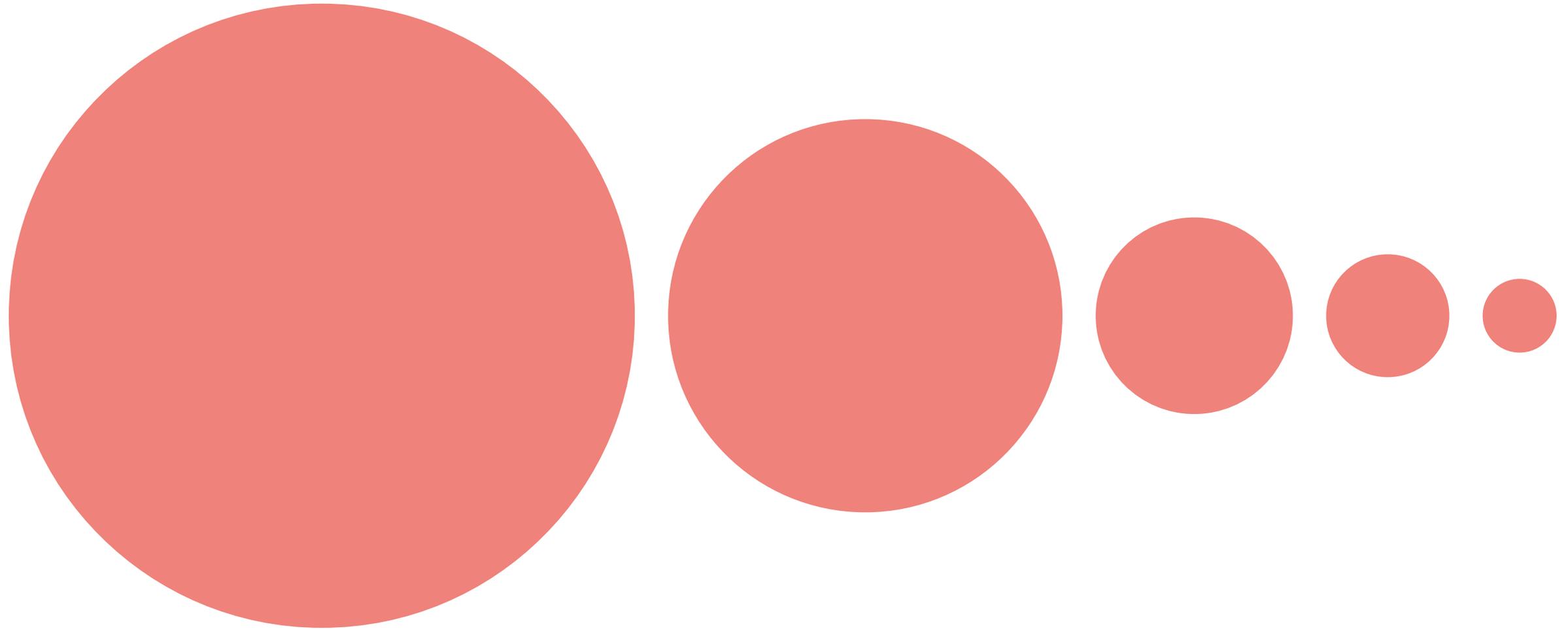
'헬조선 탈출이 꿈이라고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학생이 무슨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 그럴 시간에 공부해서 대학갈 생각을 해야지.' 세상과의 싸움!

거창한 건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다양하고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화 발전하지 않을까요?









사람책 결과보고

내일상상팀은 사람책 행사의 닫는 시간에 사람책과 참여자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이번 사람책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과보고는 사람책 사업 결과의 개요, 설문조사 결과와 해석, 그리고 총평가 글인 [이번 사람책 사업을 되돌아보며]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평가가 앞으로 활동을 해나가는 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책 사업 결과 개요

4

4회차로 진행된 사람책 행사를 통해 진주여고, 제일중, 개양중, 삼현여중 네 학교에서 사람책과 독자들이 만났습니다.

24

한 회차당 8명의 사람책이 참여했고, 24명의 사람책이 한 회차 또는 두 회차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17

117명의 참여자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사람책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와 궁금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표 ③ 사람책 회차별 참가자 수

회차	참가자 수	비고
1차	26명	
2차	13명	평일 저녁 진행
3차	28명	
4차	50명	
계	117명	

내일상상팀은 처음 행사를 계획할 때 청소년 128명(사람책8명x독자4명x행사4회=128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였으나, 총 117명의 참여자들이 모여 목표에 근접하였으나, 예상보다 회차별 참가자 수의 차이가 컸습니다. 주말에 참가할 수 없는 참가자들을 고려하여 평일 저녁에 진행한 2회차의 경우 참가자가 13명으로 진행 자체가 힘들었고, 4회차의 경우 50명의 참가자가 모여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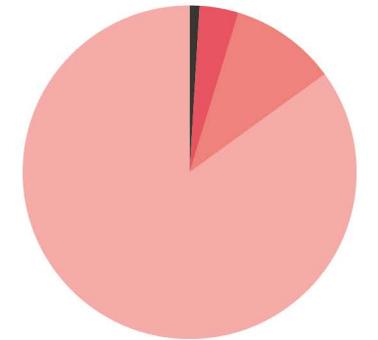
사람책 당 독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2회차의 경우 부득이하게 한 테이블에 두 명의 사람책이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생겼고, 4회차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한 사람책에게 많은 독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진주시 소재 학교에서 사람책을 진행했기에,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사람책 행사가 얼마나 권장되고 홍보되느냐가 참가자 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참여자 설문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합니다. 참여자 대상 설문은 달는 시간에 진행했기에 달는 시간에 설문까지 참여하고 간 참여자들의 설문 응답만 집계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객관식 질문 7개와 주관식 질문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참여자 대상 설문 응답은 회차별로 분석하게 될 경우 표본수가 적고 회차별 차이도 도드라지지 않아 모든 회차의 응답 결과를 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주관식 응답은 비슷한 유형의 응답은 통합하였습니다. 아래는 참여자 설문 응답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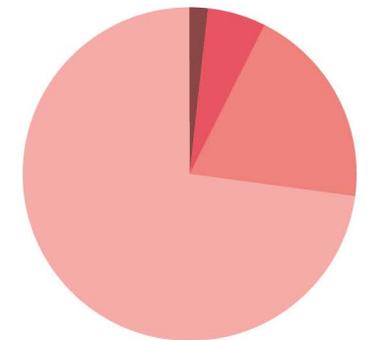
Q1.
사람책은 대화를 잘 진행하고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주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명	0.9%
그렇지 않다	0명	0%
보통이다	4명	3.7%
그렇다	11명	10.3%
매우 그렇다	91명	85.0%
계	107명	100%



Q2.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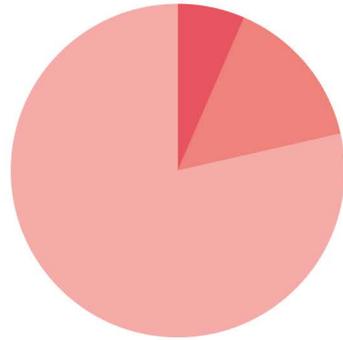
매우 그렇지 않다	0명	0%
그렇지 않다	2명	1.9%
보통이다	6명	5.6%
그렇다	21명	19.6%
매우 그렇다	78명	72.9%
계	107명	100%



프로그램 진행 시간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주관식 답변을 참고해볼 때 대부분 사람책과 만나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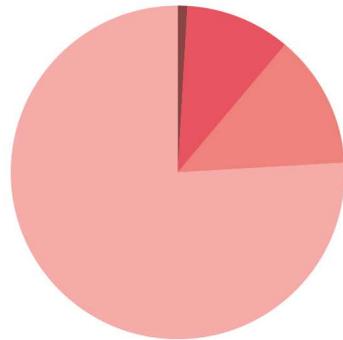
Q3.
프로그램 진행 과정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매우 그렇지 않다	0명	0%
그렇지 않다	0명	0%
보통이다	7명	6.5%
그렇다	16명	15.0%
매우 그렇다	84명	78.5%
계	107명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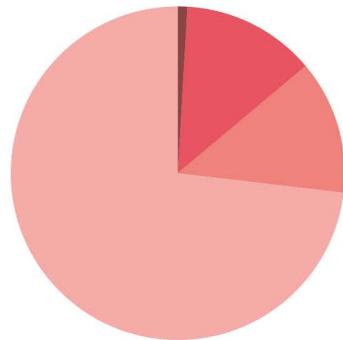
Q4.
프로그램이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0명	0%
그렇지 않다	1명	0.9%
보통이다	11명	10.2%
그렇다	14명	13.0%
매우 그렇다	82명	75.9%
계	108명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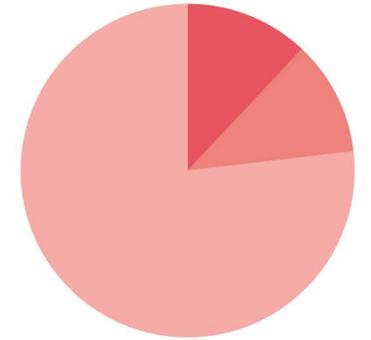
Q5.
프로그램 내용은 진로 탐색에
실제 도움이 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0명	0%
그렇지 않다	1명	0.9%
보통이다	14명	13.0%
그렇다	14명	13.0%
매우 그렇다	79명	73.1%
계	108명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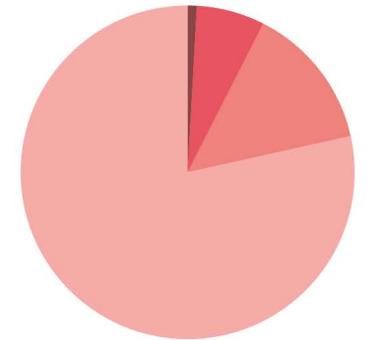
Q6.
기회가 된다면 다음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다. (내일탐색워크숍, 프로젝트 활동 등)

매우 그렇지 않다	0명	0%
그렇지 않다	0명	0.9%
보통이다	13명	12.0%
그렇다	12명	11.1%
매우 그렇다	83명	76.9%
계	108명	100%



Q7.
다른 친구들에게도
사람책 참여를 권하고 싶다.

매우 그렇지 않다	0명	0%
그렇지 않다	1명	0.9%
보통이다	7명	6.5%
그렇다	15명	14.0%
매우 그렇다	84명	78.5%
계	107명	100%



5번 질문의 경우 다른 질문보다 '보통이다'와 '그렇다'의 응답이 많고, 상대적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적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책 행사의 특성 상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사람책이 없었거나, 사람책으로부터 기대했던 고민을 해결하기 힘들었다면 좋은 답변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5번 질문이 다른 질문보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적은 것은 사람책 프로그램이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느끼는 참여자들의 반응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6번과 7번에 긍정적인 응답이 돌아왔고, 사람책 참여자가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경우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 결과가 나왔으나, 기존의 진로교육 방식이나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과 이번 사람책의 실질적인 도움 정도를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비교 질문이 있었다면 보다 사람책의 성과와 한계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Q8. 기타 좋았던점, 아쉬운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탐색 워크숍과 프로젝트 활동에 꼭 불러주세요. 진주 여자고등학교에 무조건 안내문 보내주세요!

3순위를 못 들어서 아쉽다.

사람책 분들의 이야기를 편히 들 수 있어서 좋았다. 조금 민망한 상황도 있었지만 얻는 것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간식 무한 리필과 친절한 점이 좋았고 1순위가 걸리지 않아 아쉬웠다.

이 선생님들께서 하는 일에 대해 체험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이 없는데 제 꿈을 찾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아쉬운 점은 시간이 적었다.

선생님 분들이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진로 선정에 도움이 된 것 같다.

서로 다른 연령대와 살아가면서 다른 경험을 하고,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한번에 두 명씩 사람책을 넣어 주셨는데 40분이 좀 짧은 시간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친절하셔서 좋았다.

내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쉬웠다.

시간이 많이 적절했던 것 같고 내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어서 좋았다.

체험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웠다.

너무 좋아서 없다.

감사합니다. 진로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다른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사람책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선생님들이 친절하시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을 만나 보며 나의 진로에 대해 더욱 생각 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다.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며 여러가지 성별 죄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20,000원짜리 화장품을 받아서 좋았다.

친구를 알고 있어서 좋았다.

한 사람이 다수에게 강연을 할 때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하기에 다소 어려웠는데 사람책은 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과 대화하는 형식이라 조금 더 편하고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두 명의 사람책 밖에 못들어서 아쉬웠다.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 좋았다. 너무 좋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다.

모든게 다 좋았다.

재미있었다.

'삶은 생선이다' 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굉장히 즐거웠다.

사람책 분들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진로를 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저도 몰랐던 저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좋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흐름이 만족스러웠다.

사람책과 체계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다소 짧아서 아쉬웠다.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완벽했어요.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이라도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한번에 해서 주위가 소란스러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사람책 설문조사

사람책 대상 설문은 '전체적인 소감', '사전 안내와 절차가 충분했는지 여부',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이외에 제안하고 싶은 것'의 네 가지 주관식 질문으로 구성했습니다. 답변 전부를 공유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비슷한 답변은 통합하고, 팀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추려 공유합니다. 네번째 질문인 제안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Q1. 오늘 사람책으로 활동하고 나서 전체적인 소감

아이들이 궁금해서 온다고보다 부모님께 실려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야기를 해 줄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색했지만 우리 친구들의 밝은 모습에 미소가 지어지네요. 초3친구들은 힘들어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나니 뭔가 부끄럽고 설레이네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했는데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더 많았다.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고, 두명의 선생이 진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듯 합니다.

어린 친구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도 앞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며 발전하는 기회였습니다.

아이들과의 소통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사람책의 정보를 미리 학생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사람책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왔으나 실제로는 스스로에게 "사람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며 생각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고 스스로 찾아온 친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몇 년 차이가 나지 않아도, 벌써 내 주변 친구들과 생각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구나'를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교류함이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풀어 놓을 만한 사람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반성의 시간. 궁금해했는데 지역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왜 알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는데 못 오는 걸까요? 못 오면 왜 못 올까요? 지역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솔한 고민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제목 선택을 잘못해서 아쉬웠다.

생각보다 소규모 친구들이 모여서 집중해서 이야기 할 수 있었다는 장점과 다양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내·일 상상 프로젝트의 취지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신청한 사람책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자신의 길을 헤매지 않고 잘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더 많은 학생들과 만남을 했으면 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학생들이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을 만나 이야기 하는 시간 자체가 좋았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이 바뀐 것 같아요.

청년들과 이야기 해 보며 긍정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어제와 살고 있는 지금 현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과 주고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청소년들과 대화하게 되어 기뻐다. 생각보다 질문이 많진 않았지만 궁금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전 재밌었는데 아이들은 어땠을런지... 대화를 통해 자신의 활동과 역사를 정리해 볼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제가 만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중이었어요. 준비한 내용을 그 나이에 맞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느라 혼났네요~ 그래도 학생들에게 협동조합의 가치를 쉽게 전달하고, 공정무역을 알게 하고, 사회를 또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정말 좋았습니다. 뻔한 진로 이야기가 아닌 정말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들만큼이나 사람책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배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일방적 강연이 아닌, 소수의 그룹 안에서 청소년과 사람책이 소통하는 방식이 의미가 있었음을 사람책 답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답변은 단순히 사람책이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람책에게도 새로운 고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Q2. 운영진의 사전 안내, 절차 등은 충분했다고 생각하나요?

'사람책'과 같은 프로그램을 참여한 적이 있어서 짐작해서 안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 참여한 사람은 절차나 안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나에게 올 학생들의 구성(나이대, 학년)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가늠이 어려웠는데 관련자료를 올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사람책으로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알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질문지를 작성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체 카톡방을 만들기 전까지 공지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사전에 더욱 빨리 공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준비해서 만났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 청소년 친구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경험의 기회가 정말 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준비하면서 사람책 진행하면서 나의 삶과 활동에 대해 돌아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교육시스템이 학생들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같은 시간이 많아져 더 다양한 경험과 활동들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 경험을 얻어서 좋았다. 많은 인원의 참여로 활력 넘치는 진행이 있었고 좋은 기억이 되었다.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 부분이 적었고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짧은 시간 속에서 풀어가는데 힘이 들었다. 또한 학생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 한다. 학생과 사람책과의 레포 형성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한다.

장소 안내는 잘 받았지만 진행 중 시간 안내 부분이나 전체 진행이 조금 어수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사가 거듭될수록 좀 더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카톡방에 초대가 안되어 있어서 늦게 합류했지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 오늘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전 안내는 충분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현장이 구분되는 만큼 진행 일정 및 시간 등을 칠판에 쓰거나 안내 종이를 부착하거나 해서 공간 별로 공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Q3. 사람책으로서 가장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연령대를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군요.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야기거리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느꼈습니다.

관심없는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해야 하는 부분.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 어려웠습니다.

소그룹 형태로 저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좋았습니다. 또한 저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다른 독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이야기 해 주고 친구들이 생각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줘서 생각하게 한 점.

우리 지역 친구들에게 우리 지역에도 멋지고 좋은 어른이 많다는 것을 알려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줄 수 있고, 다양한 직업을 보여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책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발견으로 나 자신도 역시 발전하는 경험이었다.

학생들과 직접 가까이 이야기를 하는 점이 단연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친구들도 있는 반면, 반 강제로 참여한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야에 산만한 모습을 보여 힘들었어요.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것이 정말 어렵네요. 시간이 짧아서 충분한 이야기를 못 나눠서 아쉽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서 색다르네요.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 이야기를 누군가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이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학생들을 모집할 때 관심분야의 사람책을 골라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학생들의 집중도나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의 고민도 알게 되었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지나가는 청소년들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청소년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학생들의 생각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좋았고 학생들과의 공감을 찾아간다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 하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전할 수 있다는 점과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여성운동가로서 살아온 나의 역사를 한 번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청소년들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고 강의가 아닌 자신이 책이 되는 것이 어려웠네요. 자기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다 싶었어요.

40분이 생각보다 기네요. 중학생 저학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는 독자 분들이 있기에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되는 사람책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중, 고등학생이 섞여 있어서 대화의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못 만나는 10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와 해 줘야 하는 이야기의 분배가 어렵네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어서 오히려 저에게 참 좋았구요, 첫번째에는 친구들 반응도 잘 없고 저도 처음이라 미숙해 어려웠지만 두번째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재밌게 했습니다.

이번 사람책 사업을 되돌아보며

이번 사람책 사업의 특징

사람책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듯이 사람책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대화하는 행사이다. 이번에 진주교육공동체 결에서 진행한 사람책 사업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이번 사람책이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진로를 모색하는 내일상상 프로젝트의 첫번째 단계라는 점이다. 즉 사람책과 청소년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이후에 청소년들이 워크숍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지역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장을 열어준다.

다른 하나는 직업이 아닌 진로 탐색이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책 선정의 기준 또한 '좋은 직업'이 아니라 '상호 교감'으로 둘 수 있었다. 상호 교감의 구체적인 키워드를 '지역'과 '청년'으로 두었는데 이는 이번 사람책 선정 기준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지역'은 청소년들이 발 딛고 있는 곳이기도 진주와 인근에서 살면서 활동하는 사람책을 선정하였고 '청년'은 청소년과 조금이라도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선정한 사람책 24명 중 2-30대 지역청년이 15명이었다.

사람책 사업의 평가

사람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람책과 청소년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사람책으로 참

최승제

진주교육공동체 결 운영위원장

가한 이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마친 직후 설문에서뿐 아니라 SNS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본인을 되돌아보고, 청소년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배우게 되었다는 소감을 접할 수 있었다. 물론 운영상에서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은 있었고, 이는 이후 사업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겠다.

한편, 사람책이 전체 내일상상 프로젝트의 첫번째 단계라는 점을 전체 공유시간과 설문 문항을 통해서 공유했고, 그 이후 프로젝트에 참가 의사를 밝히는 청소년들이 있었다는 점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어려웠던 것, 앞으로의 과제

사람책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청소년 참가자 모집이었다. 청소년들의 입시위주 교육 시스템에서 이외의 것들을 살피기 힘든 현실이라는 크고 당연한 한계가 있었지만,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많아졌고, 자치활동과 학교 밖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청소년들이는 것이 어느정도 보완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청소년 참여자들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과제는 청소년 회원이 거의 없는 '결'의 현주소를 인식하고 마을/지역교육공동체에 청소년들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실무적으로 몇 가지 되돌아볼 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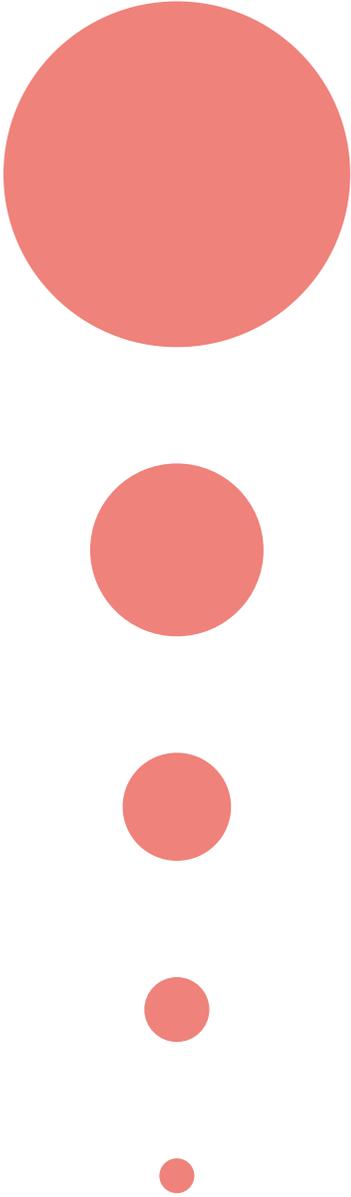
이번 사람책은 진주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학교에서 행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 공간 대여의 수준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대

한 공감대가 미리 형성되는 것이 사업 진행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진주를 네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였는데, 참가자 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당일 행사가 진행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사람책의 제목을 보고 선택해서 오는 경향이 더 컸다. 마지막으로 평일 저녁에 다수의 청소년이 참가하기는 어렵다는 뼈아픈 교훈도 얻었다.

향후 사람책과 진로강연회 참가자들은 물론이고, 마을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들, 청소년 원탁회의에 함께하는 청소년들에게 내·일상상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한다. 2단계 워크숍, 3단계 자체 프로젝트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모색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자리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 진로탐색 모임이 만들어지고, 내년 2차년에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는 것을 상상해본다.





내-일상상 프로젝트는 진주에서 계속됩니다

2019 내-일상상프로젝트 in진주 사람책 결과보고서

발행처	진주교육공동체 결
발행일	2019년 8월 14일
기획 및 정리	진주교육공동체 결 내일상상팀
주소	진주시 진주시 동진로 49번길 7 2층
밴드	band.us/band/69551647
페이스북	facebook.com/edugyeol